



## 어린이의 건강, 부모의 책임, 사회의 책임

김 명 호

**우리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배이다. 또 어느 가정에서나 어린이는 그 부모의 귀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시대이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날을 더듬어 본다면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했고 행복한 것만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많은 어린이를 출산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거나 쉽게 양육하지를 못했다. 많이 나서 많이 죽게되는 결과로 부모들은 의외의 큰 충격을 받기가 일수였다. 많은 어린이가 영양실조나 불량에 빠지고 어린이의 생활환경은 불결하고 위험하며, 사고에 대하여 무방비하고 질병에도 걸리기 쉬웠다. 그뿐만아니라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이 반드시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었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부드러운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만 자라나지도 못했다. 성인들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세워진 실질적도 아니요 이상적도 못되는 정책과 제도와 행동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어른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건강도 어린이의 건강은 어른의 그것과는 달리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의 유지 및 증진면에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농촌이나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에 차이없이 우리 지역사회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의 건강관리, 영양 및 건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4월 7일 세계보건일에 즈음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 (Immunization: A

chance for every child)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제3세계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에 걸려서 수백만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1974년부터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권장한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전체 어린이들에게 예방 가능한 질병 즉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및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매년 약 80만명의 어린이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제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6개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은 그간 매년 500만명에 달했고 또 그와같은 숫자인 500만명의 어린이는 불구의 몸으로 된것이 추정되고 있다.

오늘날 전체 세계의 1억1천8백만명의 영아에게 41%는 단 1회의 홍역 예방접종으로 또 46%는 단 1회의 결핵 예방접종(BCG)으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이 2,000년 까지 건강하게”(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는 목표아래 매진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불과 5~15\$밖에 들지 않는 6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은 개발국가의 국민으로하여금 적은 성의와 적은 노력으로 죽어가는 개발도상국가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을 통한 생존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세계는 하나라는 지구촌의 공동생활철학이 구현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모자보건 특히 영유아보건에 대한 국가의 정책수립과 수행이 능률적이어야 하고 의료 및 보건계의 적극적인 활동과 우리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인 다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경제발전만을 주시하기 쉬운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발전과 더 나아가서 국민건강과 복지가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오늘날 어느나라든지 장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의학적, 영양적 및 전반적인,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를 20~30년간은 지속하여야 이들이 비로소 회수된다는 교훈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는 장차 성인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필자=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의박)